



## 위성미 랭킹 2위

안니카 소렌스탐 1위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크래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한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세계여자골프랭킹 2위에 복귀했다.

여자골프 세계랭킹위원회가 4일(한국시간) 발표한 4월 1주차 순위에 따르면 지난주 출전 대회수 미달로 랭킹에서 빠졌던 미셸 위는 폴라크리미(미국)를 3위로 밀어내고 2위에 올랐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부동의 1위를 굳게 지킨 가운데 크래프트나비스코챔피언십 준우승자 로레나 오조아(멕시코)는 지난 주 6위에 5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18번홀 극적인 이글샷으로 22개 월만에 우승 신고를 한 카리 웹(호주)은 지난 주 17위에서 9위로 수직 상승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4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2006 마스터스 연습라운드 7번홀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티샷을 하고 있다.

'유리알 그린도 벽찬데 이젠 거리까지...'



## '꿈의 제전' 마스터스 골프 내일 개막

## 코스 난이도 높아지고 길이도 길어져

'명인열전(名人列傳)'을 뜻하는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는 오거스타내셔널골프클럽은 골퍼라면 아마추어나 프로를 가리지 않고 꼭 한 번 밟기를 꿈꾸는 무대.

올해 70회째인 마스터스는 전년도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상금랭킹, 세계랭킹 등을 기준으로 최고의 선수만 협선해 출전 자를 정하기 때문에 아무나 출전할 수 없다.

연간 4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맨 먼저 열리는 마스터스는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이 6개월 가량 문을 닫고 정성껏 손질한 유리알 그린으로 선수들을 고통하기로 악명이 높은 대회다.

그런데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은 올해 대회를 앞두고 코스 전장을 또 한번 늘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린 제작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선수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 줬다.

지난 1997년 타이거 우즈(미국)에게 18

언더파 270타리는 기록으로 무너진 뒤 해마다 코스를 조금씩 늘리며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은 올해 7천 445야드에 이르는 장거리 코스로 다시 태어났다.

이는 1997년 우즈의 첫 우승 당시 6천 925야드보다 무려 520야드가 늘어나 메이저대회 사상 두번째로 긴 코스에서 치르는 대회가 됐다.

때문에 쏘트 아이언으로도 볼을 좀체 세우기 어려운 빠르고 단단한 그린을 미들 혹은 롱아이언 또는 하이브리드클럽으로 공략해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공포의 코스'로 등장했다.

오거스타가 이번에 손을 본 홀은 6개. 1번홀(파4·445야드)은 전에는 9번 아인으로 그린을 노릴 수 있었지만 올해는 티샷을 331야드쯤 날려야 한다. 티박스를 35야드 뒤로 물린 4번홀(파3·240야드)은

핀을 그린 뒤쪽에 끌어놓으면 260야드를 때려야 버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7번홀(파4·450야드)도 35야드 늘어난 데다 페어웨이 양쪽에 소나무 다섯 그루가 보태져 티샷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 역이 더욱 좁아졌다.

무려 505야드 짜리 파4홀이 된 11번홀은 도전에 따른 보상과 벌이 확연히 갈리며 승부를 끌어왔다.

30야드가 늘어난 15번홀(파5·530야드)도 전에는 손쉽게 2온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세번째 샷으로 승부를 봄야 한다.

이 같은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의 변화에 대한 선수들의 반응은 '특히 후반 9홀이 어려워져 언더파 스코어를 내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

통신 5번째 그린제작을 노리고 있는 우즈는 "그린에 볼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졌다. 아마 1~2m 거리에 바짝 붙여 버디를

잡아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새로운 코스에서 그린 제작의 주인공이 누가 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장타자에게 절대 유리한 코스가 됐다'고 입을 모은 가운데 우즈, 비제이 싱(페지), 필 미켈슨(미국), 어니 엘스, 레티프 구센(이상 남아공) 등 '빅5'가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작년을 포함해 마스터스를 4차례나 제패한 우즈는 도박사들이 예상한 우승 배당률에서 단연 으뜸에 올랐다.

세계최대 인터넷도박 사이트 피너플스 포드닷컴은 우즈에 3-1의 배당률을 예겼다. 우즈의 우승에 100달러를 걸어 적중하면 300달러를 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우승 가능성이 90%를 넘는다는 뜻이다.

다면 우즈는 전립선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 얼 우즈(74)의 병세에 따라 경기에 전념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

한편 지난 2004년 3위에 올라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에 납다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올해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는 각오로 통산 4번 째 출사표를 던졌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상무, 수원 상대  
홈 2연승 도전

광주 상무가 영원한 우승 후보 '에알수원'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홈 연속 2연승에 도전한다.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전기리그 7라운드 주중 경기가 5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전국 7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광주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즌 개막 이후 무패(2승 4무) 행진을 보이며 4위에 랭크된 수원에 맞서 힘겨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이운재, 김남일, 조원희, 송종국 등 말 그대로 초호화 멤버로 구성된 수원은 전력상으로 광주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

## 오늘 광주월드컵경기장

## 전남은 경남 FC와 격돌

하지만 이에 맞서는 광주 역시 지난달 29일 홈에서 부산을 상대로 시즌 첫 승(2-0)을 거둔는 등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쉽게 당하지는 않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두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1골, 1도움)을 선보인 여승 원과 남궁웅을 투톱으로 내세우고 박요셉, 박용호, 김광석 등을 스리백으로 뒷문을 막길 계획이다.

이와함께 같은날 포항 이동국은 인천을 흡으로 불러들여 4경기 연속꼴에 도전한다. 또 최근 두 경기에서 침묵한 박주영(서울)도 티 아드보카트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암별에서 대구FC와 격돌한다.

1위 성남은 분당 단천종합운동장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안 포터 필드 감독이 전격 사임하고 김관곤 감독대행 체제로 탈바꿈한 부산 아이파크와 맞닥뜨린다.

전남 드래곤즈는 광양에서 경남 FC와 맞붙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토고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

## 사무디·리히텐슈타인과 평가전

독일 월드컵축구 본선 G조 한국의 첫 상대 토고가 사우디아라비아, 리히텐슈타인과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4일(이하 한국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경질된 스티븐 캐시 감독 후임으로 토고 대표팀을 맡은 독일 출신의 오토 피스터 감독은 토고가 오는 5월 1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을 갖는다고 밝혔다.

독일 남부 방면에 베이스캠프를 차리는 토고는 이어 FIFA 랭킹 124위 리히텐슈타인과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 소작물으로 대박사업!!

## 이거 천재인 줄 알았어



## 대리점 모집원모집

제작 대리점 모집이며 전국 대리점 모집을 위한 대리점 모집원 모집입니다.

## 직원모집

- 채수 씨 2년차를 맞서 서장 직원과 1인당 100만 원
  - 채수 씨 1년차를 맞고자하는 직원 1인당 100만 원
  - 채수 씨 Tel 062-372-0017 Fax 062-372-0018
- 구강물산 호남총판 (주)조인스데코

## 제일모직 outlet 전매입구 시거리



제일모직 본사 학동상품원 취급  
• 대형점 1회 기준으로 2회 해택

60~40% 할인



제일모직 본사 학동상품원 취급  
• 대형점 1회 기준으로 2회 해택

60~40% 할인



제일모직 본사 학동상품원 취급  
• 대형점 1회 기준으로 2회 해택

60~40% 할인